



'열대야' 잠 못드는 밤

때 이른 폭염이 전국을 달구고 있다. 지난 8일 밤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 시민들이 기족들과 함께 산책하며 열대야의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때이른 폭염 ... 숨막힌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에 올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때 이른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폭염경보 발령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9일 빨리온 것으로 폭염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가축·농작물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7면>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오후 2시 광양, 나주,

곡성, 구례, 화순, 순천 등 6개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또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와 담양, 장성, 고흥, 보성, 강릉,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진도 등 10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폭염경보 2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9일 오전 11시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오전부터 짐통더위에 시달렸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9일 낮 최고기온이 광양 36.9도를 비롯 화순 36.5도, 구례 36.1도, 순천 36도, 광주 34.1도 등을 기록했다.

더위 먹어 사망·실신 잇따라

지난 8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이모(여·31)씨의 집에서 이씨가 탈수 증세로 인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날 오후 1시40분께 순천시 매곡동 시립도

서관 뒷길에서 집에 가던 이모(여·55)씨가 탈진했고 이 날 낮 12시께 순천시 가곡동 T식당 앞에서 김모(여·60)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지난 7일 오후 광주시 광

산구 지평동 송산유원지에서 훈련을 받던 전남경찰청 전경 문모(22)씨가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망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8일 경남 합천군에서 안모(여·78)씨가 콩밭에서 숨진채 발견되는 등 합천에서 만 노인 2명이 폭염으로 숨졌다.

가축 폐사·벼 병해충 '비상'

가축과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폭염으로 인해 가축 폐사, 농작물 고사, 병충해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밝혔다. 폭염이 지속될 경우 가축은 호흡이 가빠지고 발육과 번식장애가 발생해 심한

경우 폐사하게 되므로 적절한 온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

벼는 고온이 지속 될 경우 잎도열병 및 이삭도열병 발생과 개화, 수정불량에 의해 수량이 감소하므로 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학교 단축수업 검토

광주·전남지역 각급 학교 중 아직 수업 단축등의 조치를 내린 학교는 없지만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9일 폭염특보시 단계별 조치내용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띄워 철저히 대비하도록 했다.

폭염주의보 때는 유치원·초등·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 자체를 권고하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단축수업, 등하고 시간 조정 등이 가능하다.

폭염경보에는 유치원·초등·특수학교는 가정학습을 실시하고, 중·고교는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 자체를 권고하고 단축 수업 등이 가능하다. 육군 31사단은 최근 장병의 기상 시간을 1시간 일찍 앞당기는 등의 각 예하 부대의 일과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최권일·강필상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뜨거워졌다

34년간 최고 1.2°C 상승

지난 34년동안 광주·전남지역의 평균기온은 적게는 0.3도에서 많게는 1.2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도시지역의 상승폭이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0.95도 상승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34년간 도시지역 25곳, 농촌지역 24곳, 산간지역 11곳 등 60곳의 평균기온 변화를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광주는 1970~80년대 13.2~13.3도를 보이던 연 평균기온이 1990~2000년대에는 13.9~14.0도까지 상승해 최대 기온차가 0.8도를 기록했다. 목포의 연 평균기온도 1970~80년대 13.5~13.7도를 기록하던 것이

1990~2000년대 13.9~14.2도까지 0.4~0.5도 상승했다.

특히 순천의 경우는 1970~80년대 12.5~13.4도를 보이던 연 평균기온이 1990~2000년대 13.6~13.7도까지 치솟아 최대 기온차가 1.2도를 기록, 광주·전남지역 가운데 기온상승폭이 가장 커졌다.

하지만 농촌지역으로 분류된 완도, 고흥지역의 기온 상승폭은 도시지역에 비해 적었다. 완도의 경우 1970~80년대 13.8도를 보이던 연 평균기온은 1990~2000년대에 들어 13.9~14.4도를 기록했고, 고흥은 1970~80년대 13.4~13.6도를 보이던 연 평균기온이 1990~2000년대 13.6~13.7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미 쇠고기 국정조사

18대 국회 오늘 개원 ... 의장 선출

원구성 등 난제 산적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 데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도 난항이 예상돼 국회 과행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42일 동안이나 문을 닫고 있던 18대 국회가 10일 개원한다. <관련기사 5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오후에는 개원식을 가질 계획이다. 또 1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미 쇠고기 국정조사
18대 국회 오늘 개원 ... 의장 선출
원구성 등 난제 산적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42일 동안이나 문을 닫고 있던 18대 국회가 10일 개원한다. <관련기사 5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오후에는 개원식을 가질 계획이다. 또 1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

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

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

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

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

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

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

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

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

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

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

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 원내

대표단이 합의한 국회 등원을 주인했다.

국회는 또 16~18일, 21일 나흘간